

영암군 무화과 ‘콜드체인 시스템’ 갖춘다

선별·포장·수송 신선도 유지
자조금 도입·공동출하 등 제언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 콜드 체인(cold chain) 시스템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자까지 저장 및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

영암군이 지역특산품인 무화과의 유통 혁신을 꾀한다. 선별·포장·수송 등 유통체계에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구축,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영암 무화과 산업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무화과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품질 무화과 생산·유통·가공식품개발 등 전반에 대해 점검과 대

안을 고민했다.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별, 포장, 수송 등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유통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됐다. 생산 농가부터 산지 유통업체, 중간 유통업체, 공판장까지 유통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저장성이 약한 무화과의 신선도와 품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로폼 형태의 포장재로 인해 장기간 상온 유통시 상품의 상처와 부패 등 다양한 생리적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적용한 소포장 보급, 프리미엄급 고품질 무화과 생과일 날개 포장 등의 대안이 나왔다. 선별 과정에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품종별 생체중량·착색 정도·당도에 따라 특·상·중·하로 구분, 품종별 맞춤형 생과 등급화 체계 구축 등 등급제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구매의 성장에 대응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활성화와 공동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제안했다. 또 무화과의 흉수 출하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화과 자조금 제도 도입과 공동출하, 공동 선별장 구축도 제시됐다. 영암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평영암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환경친화적 농업 생태계를 구현해 자연과 농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영암 무화과의 명품화를 위한 유기농 인증 및 비닐하우스 확대 보급 등 고품질 무화과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보행안전 조례 제정 보행자 안전 확보·편의 증진

해남군은 최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남읍내 인도는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노후가 심각한 상태로 보도블록이 들뜨고 파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해남군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보행안전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등 내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집중호우에 ‘쓰레기 섬’으로 변한 목포 앞바다



11일 오후 4시 목포시 옥암동 옥암수변공원 입구에서 목포평화광장 쪽으로 쓰레기더미가 형성돼 있다. (왼쪽) 목포 남향 선착장에도 수백에 달하는 쓰레기더미가 몰려와 선박 운항을 막고 있다.



목포 남향 선착장에도 수백에 달하는 쓰레기더미가 몰려와 선박 운항을 막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평화광장·여객선터미널 등 10만㎡...3일째 수거 “끝이 안보인다”

15일까지 영산강 수문 개방 예정
비닐·스티로폼 등 더 유입될 듯

목포가 쓰레기섬으로 변했다. 전남지역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의 수문을 열면서 해상쓰레기가 목포 앞바다를 뒤덮었다. 11일 오후 4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있는 목포 평화광장, 폭 500m의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무려 2km에 걸쳐 형성됐다. 이 쓰레기더미는 인근 남향과 내항 등 목포 앞바다 10만㎡에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에는 더 많은 해상쓰레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산강사업단은 장성과 나주 등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지난 7일부터 폭 480m의 수문 13개를 하루 1~2차례씩 개방하고 있다. 수문을 통해 초당 최대 1만2000t의 물이 목포항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도 함께 흘러보내지고 있다. 유입된 비닐과 스티로폼, 강동 등 생활쓰레기는 물론 강변의 갈대와 나무, 풀 등 온갖 쓰레기는 평화광장 앞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 섬을 이루고 있다. 또 남향과 목포여객선 터미널 등에도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목포해수청과 목포시는 해경과 군부대 등의 도

움을 받아 지난 9일부터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밀려든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영산호 수위조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수문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어 목포 앞바다로의 쓰레기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수청은 청향선(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선박) 2척과 64t급 목포청해호, 82t급 청해2호 등 선박 4척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 중이다. 여기에 완도에 있는 59t급 여항해1호도 추가로 투입해 쓰레기 160t을 수거했다. 목포시와 해수청은 목포 앞바다로 밀려든 쓰레기가 너무 많아 경찰과 군부대의 인력과 특수장비

를 지원받아 수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목포해수청은 목포시와 긴밀히 협의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영산호 내부에도 쓰레기가 많아 수문 개방시 목포항으로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쓰레기 유입을 예측할 수 없어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호 내부인 목포해양스포츠센터 인근도 배수갑문을 통과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 곳은 전남도에서 청소선을 동원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마관가지다. /목포=박종배·박영길 기자 pjb@kwangju.co.kr

‘진도아리랑 상품권’ 10%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도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억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발행,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기간 동안에는 월 70만원·연 6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했다. ‘진도아리랑 상품권’은 지역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18곳에서 구입 가능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또 진도지역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 1235개 ‘진도아리랑 상품권’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구매 금액의 70%(1만원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가맹점주는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상품권 금액 그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50억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 경매 물건 |
|---|--|
|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